

청소년상담사 양성을 위한 대학 표준교육과정의 영역 및 교과목 탐색: 델파이 조사를 중심으로*

김동일**·박준영***·이주영****·박인후*****·임기훈*****

I 알기 쉬운 개요

청소년기는 성인이 될 때까지 발달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는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중독, 폭력, 자살과 같은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청소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가 더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상담사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 훈련받은 전문가들이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같은 다양한 기관에서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상담사가 되려면 법에서 정한 청소년상담 관련 전공을 공부하고 자격검정을 통해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학에서는 아직 어떤 교과목을 중점적으로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합니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으로 인해 이 연구에서는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청소년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청소년상담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 교육과정에서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 하는지를 조사했습니다. 특히 청소년상담 전공 교수들과 현장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과목과 영역이 필요한지를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 결과를 대학 교육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제안하였습니다.

- * 이 논문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청소년상담사 표준 교육과정 개발 연구' 내용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 ** 서울대학교 교육학과/교육연구소 교수, dikimedu@snu.ac.kr
- *** 서울대학교 교육학과/교육연구소 박사수료, 교신저자, jyprk@snu.ac.kr
- **** 단국대학교 상담학과 부교수, jylee@dankook.ac.kr
- *****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ihp91@naver.com
- *****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석사과정, gihun.im@snu.ac.kr

투 고 일 / 2023. 8. 31.
심 사 일 / 2023. 10. 13.
심사완료일 / 2023. 11. 7.

I 초록

최근 중독, 폭력, 자살 등 고위기 청소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장에서 고위기 청소년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청소년상담사 양성을 위해 대학 교육과정에서 개선되어야 할 방향성을 탐색하고 표준교육과정의 영역과 교과목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청소년상담사 교육과정에 대한 선행연구와 청소년상담 관련 전공 교수 및 현장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상담사 표준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요구를 조사하였다. 선행연구와 요구조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표준교육과정의 영역과 교과목 초안을 구성하였다. 이후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여 표준교육과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조사 결과 청소년상담사 표준교육과정의 영역 및 교과목은 상담기초, 상담실습, 인간·청소년 이해, 영역별 상담, 상담 실무 및 행정 5개 영역과 29개의 필수 및 선택 교과목으로 제안되었다. 마지막으로, 개발된 청소년상담사 표준교육과정의 현장 적용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주제어: 청소년상담사, 표준교육과정, 델파이 조사

I. 서 론

최근 청소년들이 보이는 문제들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 강력범죄 발생률은 2016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마약류 사범 비율도 최근 10년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20년 적발된 청소년 마약사범 수가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하였다(여성가족부, 2022). 마약류는 청소년의 신체 및 정신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예방 및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우울증을 경험한 청소년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자살 사고 및 계획, 시도 비율도 증가하는 추세이다(여성가족부, 2022). 실제로 자살 시도로 인한 청소년의 응급의료기관 내원 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Lee et al., 2022). 우리나라는 2009년 이후로 OECD 국가 중 자살 원인으로 인한 청소년 사망 1위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청소년 자살 문제는 국가적으로도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기는 신체적인 성장과 함께 심리·사회적 발달이 이루어지는 과도기 단계로 다양한 정서행동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Copeland, 1974; 정순례, 양미진, 손재환, 2015; 신혜란, 2019; Reddy, Rhodes & Mulhall, 2003; 김형수, 이주영, 2021), 청소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어려움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기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처하는데 지원해 줄 수 있는 청소년상담 전문가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청소년상담 현장에서도 청소년상담사에게 상담 관련 역량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개인적, 환경적 특성을 이해하고, 자원을 연계하는 등 개입을 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역량을 요구하고 있다(김동일, 현은정, 우예영, 박준영, 2020). 이처럼 청소년상담사들이 청소년들의 위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상담사의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수적이다.

청소년상담사는 청소년들의 심리·정서적 발달을 지원하고 청소년 위기 문제 대처를 위한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2003년부터 발급되기 시작하여, 2021년 기준 30,313명이 배출되는 등 양적으로 큰 성장을 이루었다(여성가족부, 2022).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는 여성가족부장관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자격검정을 시행하고 있고,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은 100시간 이상의 연수를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여성가족부, 2022). 이때 자격검정은 크게 필기시험, 면접시험, 서류심사로 구분된다. 서류심사에서는 자격 응시자가 자격검정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를 검증하는 과정으로 법령에 제시되어 있는 학과를 졸업하거나, 상담 관련 유사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는 학과를 졸업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이러한 응시자격은 응시자 중 일부가 실제 상담 관련 과목을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응시자격에서 규정하는 대학 학과를 졸업했다는 이유만으로 응시자격을 갖추게 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최근에 신설된 상담 관련 대학 학과들의 경우

법령에 명시된 10개 학과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 학과 졸업자의 응시자격을 판별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행정적 번거로움 또한 현 응시자격이 가진 또 다른 문제이다. 또한 상담과 관련 없는 전공(예: 교육공학, 생물심리학)을 지닌 지원자도 응시자격을 얻을 수 있는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상담 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실무경력이 있음에도 응시자격을 얻을 수 없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 심지어 청소년상담학과를 졸업해도 청소년 지도사만 준비한다면 상담 관련 과목을 이수하지 않고 졸업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김동일, 김인규, 서영석, 2017). 이는 상담의 특성상 실무 경험 없이 바로 상담을 실시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상담과 관련이 없는 전공을 졸업했거나 상담 실습 관련 과목을 수강하지 않은 합격자들을 재교육 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결과로 이어진다. 현재 청소년상담사 교육과정은 연수 과정부터는 표준화되어 있어 관리가 되고 있지만 그 이전 양성과정은 개별 대학 및 학과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응시자가 실제로 이수한 과목을 바탕으로 응시자격을 판단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응시자격을 학과명에서 과목 이수제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대학의 양성과정부터 교육과정이 표준화되어 인증 절차를 거치는 것이다(김인규, 2018).

국내외 상담 관련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미국의 경우 CACREP(Council for the Accreditation of Counseling and Related Education Programs)이라는 협의회가 상담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표준안을 마련하고 개정하며, 석사와 박사학위의 프로그램을 인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21년 기준 416개 학교에서 900개 이상의 상담 관련 프로그램이 CACREP의 인증을 받았다(Council for the Accreditation of Counseling and Related Education Programs[CACREP], 2021). 상담 관련된 대학원 과정은 사범대학,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보건대학 등의 다양한 단과대학에 걸쳐 분포되어 있으며, 학제 자체나 학과명이 아닌 해당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상담 실습, 교육 환경 등 표준안을 기준으로 교육기관의 자격을 인정받는다. CACREP의 표준안은 전문화 교육과정(석사학위 프로그램), 상담자 교육과 수퍼비전(박사학위 프로그램), 교육 환경, 상담자의 정체성, 상담 실습, 프로그램 평가 등 총 6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CACREP의 표준안에는 상담 실습이 최소 100시간을 최소 10주에 걸쳐 이수 해야하며, 이 중 내담자와의 개인 및 집단 서비스 제공 시간이 최소 40시간 이상이 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4시간 상담자 경험, 교수 혹은 현장 수퍼바이저에게 1주당 1시간의 1:1 또는 1:3의 수퍼비전, 현장 수퍼바이저에게 1주당 30분의 집단 수퍼비전, 녹음 및 녹화를 통한 수퍼비전, 실습 완료 후 상담 수행에 대한 평가 등이 포함되어있다(CACREP, 2016).

국내 상담 관련 학과의 교육과정 연구를 살펴보면, 박재황, 남상인과 김창대(1993)는 심리학과, 교육학과, 교육심리학과, 사회복지학과, 아동학과 등 5개 상담 관련 학과를 교육의 현

황, 자질, 내용, 방법 측면에서 분석하였는데, 청소년상담사의 전문적 자질을 크게 상담활동과 관련된 자질(상담, 자문), 상담지원활동(상담자교육, 연구, 행정)으로 구분하여 필요한 교육내용을 지식과 기술의 차원에서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상담 관련 대학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교과목에 대해 탐색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숙영과 김창대(2002)의 연구에서는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구분하여 상담 전공 교수들을 대상으로 대학원 상담 교육과정 교과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석사과정 교과목은 총 16개 과목으로 구분되었으며 그 중 6개 과목(상담이론, 집단상담이론, 심리검사, 상담면접, 교육 및 심리통계, 상담윤리 및 법)의 개설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박사과정 교과목은 총 26개 과목으로 구분되었으며, 그 중 4개 과목(상담자 교육과 슈퍼비전, 심리진단 및 평가, 가족상담이론, 상담연구세미나)의 개설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최혜림과 김영혜(2006)도 국내 상담심리 석·박사 교육과정에 대한 현황을 조사를 하였는데, 상담 관련 전공의 교과목은 상담전공, 상담관련, 연구방법론, 실습훈련, 기타과목 총 5개 범주로 분류하였고, 각 범주에 포함되는 교과목에 대해 제시하였다.

이처럼 기존 상담 관련 교육과정 연구에서는 대학에서 가르쳐야 하는 교과목과 영역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 지금까지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들은 대학의 전공 이수과정 이후 과정들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먼저, 김창대, 이은경과 김인규(2013)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개선안으로 청소년상담사 등급 체계를 2등급 체계로 변경하고, 응시 자격 기준에 실무경험과 이수 과목에 대한 기준을 포함시키는 방안, 그리고 자격검정 과목의 수와 내용을 일부 축소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서영석 등(2013)은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과목의 적절성, 연수 및 보수교육의 운영방식, 청소년상담사 선발과정에 대해 분석하고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김동일 등(2017)은 학부 및 대학원 이수과목 분석을 통해 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 자격검정 과목, 자격연수 과정을 검토하였고, 각 과정별 연계성을 고려한 자격검정 과목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최창욱과 좌동훈(2021)은 청소년상담사 직무분석을 통한 교과목 분석과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과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과목 개편안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자격검정 과목이나 연수 및 보수교육에 대한 개선안들은 지속적으로 제안되었지만, 대학의 청소년상담 관련 전공의 교육과정이 청소년상담사를 양성하는데 충분한 양과 질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는 부족한 상황이다. 다시 말해, 청소년상담사 교육과정은 연수 과정부터는 표준화되어 있어 관리가 되고 있지만, 그 이전 양성과정은 개별 대학 및 학과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기 청소년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청소년상담사를 양성하기 위해 자격검정시험을 보기 전 전공 이수과정에서 개선되어야 하는 방향을 탐색하여 표준교육과정의 영역과 교과목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상담 관련 자격증의 표준교육과정 개발 연구를 보면 일반적으로 문헌 조사, 전문가협의회, 현장 인터뷰와 같은 연구 방법을 사용한다

(교육부, 2010; 김희정, 유형근, 정유주, 선혜연, 2015; 장현진, 이종범, 20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상담사 표준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청소년상담 관련 전공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표준교육과정에 대한 전문가 요구분석 및 교육과정 기본 틀 마련, 청소년상담 관련 전공 교수 및 현장 전문가 대상 델파이 조사 순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상담사 표준교육과정의 영역과 교과목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도출된 청소년상담사 표준교육과정의 교과목과 영역은 이후 청소년상담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에 있어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II. 방 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상담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을 델파이 패널로 구성하였다. 먼저 학계와 현장의 요구를 고루 반영하기 위해 대학교수와 기관 실무자를 패널 참여자 기준으로 결정하였다. 대학교수는 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에 명시된 10개 학과(교육학, 심리학, 상담학, 사회복지학, 청소년학 등)에서 예비 청소년상담사를 양성하고 있으며 상담 실무 및 상담자 교육 경력이 있는 교수로 한정하였고, 기관 실무자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취득자이자 상담 실무 및 상담자 교육 경력이 3년 이상이며, 각 기관에서 관리자급과 같이 청소년상담사를 선발하고 지도 감독한 경험이 있는 자로 한정하였다. 그 외에 각 참여자의 지역, 전공, 소속기관, 경력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하였다. 최종적으로, 상담 관련 전공 교수 7명, 청소년상담 현장 실무자 9명, 총 16명의 전문가가 1차 및 2차 델파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표 1

델파이 조사 참여자 정보

참여자	지역	성별	연령	전공(최종 학위)	소속기관	상담 실무 및 상담자 교육 경력
1	전북	남	50대	교육학	대학	20년 이상
2	서울	남	50대	교육학	대학	20년 이상
3	충북	여	40대	교육학	대학	15년 이상 ~ 20년 미만
4	서울	여	40대	심리학	대학	10년 이상 ~ 15년 미만
5	경북	여	50대	교육학	대학	20년 이상
6	서울	남	50대	심리학, 사회사업학	대학	20년 이상

참여자	지역	성별	연령	전공(최종 학위)	소속기관	상담 실무 및 상담자 교육 경력
7	서울	남	50대	사회복지학	대학	3년 이상 ~ 5년 미만
8	서울	여	50대	교육학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년 이상
9	서울	여	40대	사회복지학	청소년쉼터	10년 이상 ~ 15년 미만
10	경기	여	50대	청소년학	청소년회복지원시설	5년 이상 ~ 10년 미만
11	경북	여	30대	임상 및 상담심리학	청소년비행예방센터	5년 이상 ~ 10년 미만
12	부산	여	40대	교육학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5년 이상 ~ 20년 미만
13	서울	여	40대	상담학	청소년쉼터	15년 이상 ~ 20년 미만
14	서울	여	40대	상담심리학	해바라기센터	10년 이상 ~ 15년 미만
15	서울	여	40대	사회복지학	발달장애인지원센터	3년 이상 ~ 5년 미만
16	부산	여	30대	청소년교육상담학, 아동가족학	보호관찰소	5년 이상 ~ 10년 미만

2.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청소년상담사 양성을 위한 대학 표준교육과정의 교과목과 영역을 도출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및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이후 표준교육과정에 관한 의견 수렴과 현장에서 요구되는 청소년상담사의 역할과 역량을 도출하기 위해 FGI를 실시하였고, 국내외 상담 관련 교육과정 분석 등을 토대로 청소년상담사 표준교육과정의 교과목과 영역 초안을 마련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초안에 대해 총 2차의 델파이(Delphi) 조사를 실시하여 수정·보완 및 타당화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세부 연구 절차를 살펴보면, 선행연구(김창대 등, 2013; 서영석 등, 2013; 김희정 등, 2015; 김동일 등, 2017; 최창욱, 좌동훈, 2021)에서 제시된 청소년상담사 및 유관 직역의 교육과정과 NCS에 제시된 상담 관련 교육과정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표준교육과정의 지향점과 교육과정 포함 과목 및 내용, 교육과정 적용 시 고려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 상담 관련 전공 교수 및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FGI)을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초점집단면접 참여자는 델파이 조사 참여자로 섭외한 전문가들 중 상담 관련 전공 교수 4인과 기관 실무자 7인이 참여하였다. 전문가들은 표준교육과정 구성 시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을 나누어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기존 청소년상담사 연수과목과 검정과목에서 다루어지는 내용 외에 현장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상담 실무 및 행정에 관한 역량을 함양하는 데에 필요한 교과목을 표준교육과정에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표준교육과정의 틀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총 5개 영역(상담기초, 상담실습, 인간·청소년 이해, 영역별 상담, 상담 실무 및 행정)을 도출하였으며, 이후 각 영역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작성하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이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의거해 '상담 관련 분야' 학위 취득자 또는 4개 이상의 동일(유사)교과목을 교과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분야를 졸업한 자에게만 주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준에 공시된 상담 관련 분야 10개 학과의 동일(유사)교과목을 본 교육과정의 교과목명에 포함시켰다. 교과목명은 상담 전공 교수 2인과 상담 전공 박사과정 학생 2인, 석사과정 학생 1인의 검토를 거쳐 표준교육과정 구성 영역에 따라 분류되었으며, 도출된 표준교육과정안은 표 2와 같다.

표 2

청소년상담사 1차 표준교육과정안

영역	교과목
상담기초	상담의 이론과 실제, 집단상담, 심리측정 및 평가
상담실습	사례연구 및 슈퍼비전, 상담현장(기관)실습, 사회복지현장실습
인간·청소년 이해	발달심리학, 이상심리학, 성격심리학, 학습심리학, 사회심리학
영역별 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학업상담, 비행상담, 성상담,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중독상담, 다문화상담 및 사회정의옹호상담, 위기상담
상담 실무 및 행정	면접원리, 상담교육, 연구방법론, 프로그램 개발, 상담법제도, 상담윤리, 상담 행정 및 정책

도출된 표준교육과정안을 바탕으로 총 2회의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델파이 조사 문항은 표준교육과정의 각 영역과 조작적 정의를 제시한 후 이에 대한 적합도를 5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적합하지 않음 - 5점: 매우 적합)로 측정하였고, 각 영역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영역으로 보는지, 선택적으로 이수해도 무방한 영역으로 보는지를 선택하게끔 하였다. 각 영역에 속한 교과목의 적합도와 필수 여부 또한 영역에 대한 문항과 마찬가지로 5점 리커트 척도와 필수 여부에 대한 선택형 문항으로 제시하였다. 그 외에 개방형 질문을 통하여 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 변경, 강의계획서 구성, 교육과정별 중점 역량, 표준교육과정 현장 적용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였다. 1차 델파이 조사에 응답한 의견을 바탕으로 표준교육과정안의 일부 교과목을 삭제하거나 영역 구분을 변경하였고, 새로운 교과목을 추가하였으며, 각 영역 및 교과목의 조작적 정의를 수정하였다. 이후 재구성된 문항을 바탕으로 2차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및 2차 델파이 설문은 이메일을 활용하여 송부 및 회신되었으며, 1차 델파이 조사 참여자 전원이 2차 델파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연구 절차를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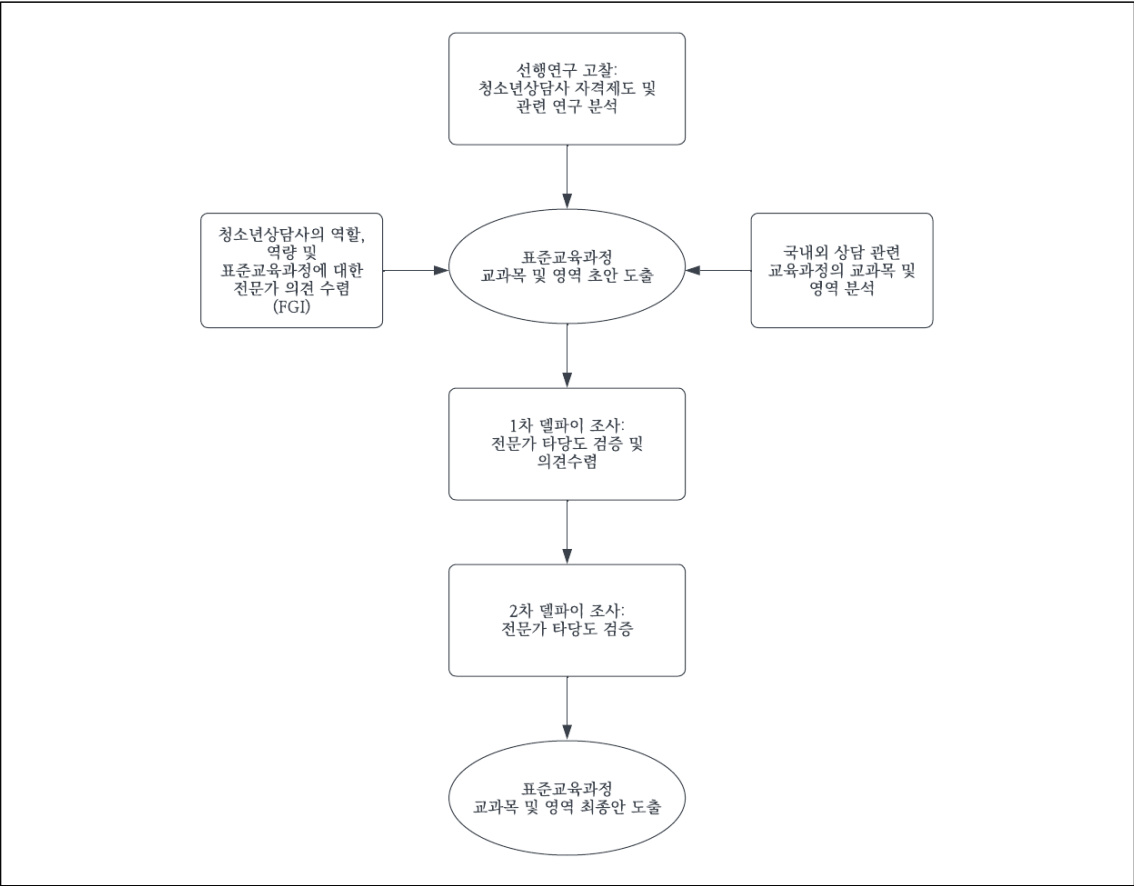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절차: 청소년상담사 양성 대학 표준교육과정 영역 및 교과목 도출 과정

수집된 자료는 일차적으로 문항별 빈도, 중앙치,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전체적인 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Lawshe(1975)가 제시한 내용타당도 산출 공식을 통해 CVR(Content Validity Ratio) 값과 합의도, 수렴도 계수를 제시하였다.

먼저, CVR은 특정 문항에 ‘매우 적합하다’ 또는 ‘적합하다’로 응답한 참여자의 비율을 나타내는 값으로, 최저 -1.0에서 최고 +1.0의 범위에 속한다. 이를 산출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CVR = \frac{N_e - \frac{N}{2}}{\frac{N}{2}}$$

N : 전체 참여자 수

N_e : ‘적합하다’고 응답한 참여자 수

CVR이 양수인 경우는 ‘적합하다’고 응답한 참여자 수가 절반 이상인 것을 의미하며, 최소 기준값 이상일 경우 내용타당도를 확보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합의도와 수렴도

는 델파이 조사의 타당도를 판단하기 위한 또 다른 측정치로, 이를 산출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이종성, 2006).

$$\text{수렴도} = \frac{Q_3 - Q_1}{2}, \text{합의도} = 1 - \frac{Q_3 - Q_1}{Md}$$

Q_1, Q_3 : 제1사분위 및 제3사분위 계수 (전체 사례수의 누적값 중 25%, 75%)

Md : 중앙값

위의 공식에 따라 산출되는 수렴도가 0에 가까울수록, 또 합의도가 1에 가까울수록 평정 결과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Ayre와 Scally(2014)가 계산한 이항확률에 의한 CVR의 임계값에 따라, 16명의 패널이 참여했을 때의 기준인 .50을 최소 기준값으로 설정하였다.

III. 결 과

본 연구에서는 총 2차의 델파이 조사를 거쳐 청소년상담사 표준교육과정을 최종 5개의 영역과 30개의 교과목으로 구성하였다. 1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영역과 조작적 정의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CVR, 합의도, 수렴도, 필수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청소년상담사 표준교육과정의 영역 및 조작적 정의

영역	조작적 정의	평균	표준 편차	CVR	합의도	수렴도	필수 응답률 (%)
상담기초	상담이론, 심리평가, 집단상담 등 상담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다루는 과목	4.87	0.35	1.00	1.00	0.00	100.0
상담실습	학위과정 중에서 상담을 수련하는 과목	4.80	0.41	1.00	1.00	0.00	100.0
인간·청소년 이해	청소년을 포함한 인간 발달, 성격, 정서적인 이해를 다루는 과목	4.27	0.80	0.60	0.75	0.50	81.3
영역별 상담	진로상담, 학업상담, 비행상담, 성상담 등 특수분야의 상담을 다루는 과목	4.07	0.80	0.73	0.88	0.25	31.3
상담 실무 및 행정	연구방법, 프로그램 개발, 기관 운영 등 상담 실무, 연구, 행정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과목	4.20	0.68	0.73	0.75	0.50	50.0

각 영역 및 조작적 정의에 대한 평균은 4.07-4.87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CVR은 0.60-1.00으로 교육과정의 영역 구분과 이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타당도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의도는 0.75-1.00, 수렴도는 0.00-0.50으로 참여자들의 의견 또한 전반적으로 수렴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영역별 필수 여부의 경우 상담기초, 상담실습 영역이 100%로 참여자들 전원이 필수 영역으로 판단했지만, 영역별 상담은 31.3%, 상담 실무 및 행정은 50.0%로 상대적으로 낮은 빈도를 나타냈다.

표 4

청소년상담사 표준교육과정의 영역 및 교과목 변화 추이

1차 교과목(27개)	2차 교과목(31개)	최종 교과목(29개)	필수 선택	영역
상담의 이론과 실제	상담의 이론과 실제	상담의 이론과 실제	√	상담기초
집단상담	집단상담	집단상담	√	
심리측정 및 평가	심리평가◆	심리평가	√	
-	청소년상담의 이론과 실제★	청소년상담의 이론과 실제	√	
-	-	상담윤리△	√	
사례연구 및 수퍼비전	사례연구 및 수퍼비전	사례연구 및 수퍼비전	√	상담실습
상담현장(기관)실습	상담현장(기관)실습	상담현장(기관)실습	√	
사회복지현장실습	사회복지현장실습	사회복지현장실습	√	
-	-	면접원리△	√	
발달심리학	발달심리학	발달심리학	√	
이상심리학	이상심리학	이상심리학	√	인간·청소년 이해
성격심리학	성격심리학	성격심리학	√	
학습심리학	학습심리학	학습심리학	√	
사회심리학	사회문제론◆	×		
-	청소년이해론◆	청소년이해론	√	
진로상담	진로상담	진로상담	√	영역별 상담
가족상담	가족상담	가족상담	√	
학업상담	학업상담	학업상담	√	
비행상담	비행상담	비행상담	√	
성상담	성상담	성상담	√	
중독상담	중독상담	중독상담	√	
위기상담	위기상담	위기상담	√	
다문화상담 및 사회정의옹호상담	다문화상담◆	다문화상담 및 사회정의옹호상담◎	√	
-	사회정의옹호상담★	×		
-	부모상담★	부모상담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	

1차 교과목(27개)	2차 교과목(31개)	최종 교과목(29개)	필수	선택	영역
상담 행정 및 정책	상담 행정 및 정책	상담 행정 및 정책		✓	상담 실무 및 행정
연구방법론	연구방법론	연구방법론		✓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개발		✓	
상담법제도	상담법제도	상담법제도	✓		
상담윤리	상담윤리	-			
면접원리	면접원리	-			

신규=★, 수정=◆, 통합=◎, 이동=△, 삭제=×

1차 델파이 조사와 2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도출된 교과목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1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27개의 교과목을 제시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29개의 교과목이 표준교육 과정에 포함되었다. 이 중 2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1차 델파이 조사에서 일부 교과목의 명칭에 대한 수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심리측정 및 평가’가 ‘심리평가’로, ‘사회심리학’이 ‘사회문제론’으로 수정되었고, ‘다문화상담 및 사회정의옹호상담’이 ‘다문화상담’과 ‘사회정의옹호상담’으로 분리되었으며, ‘청소년상담의 이론과 실제’, ‘청소년이해론’, ‘부모상담’이 추가되어 총 31개의 교과목을 제시하였다. 표준교육과정 최종 개발 단계에서는 일부 교과목의 명칭 및 영역 구분에 대한 수정 제안을 반영하여 ‘상담윤리’가 ‘상담기초’ 영역으로, ‘면접원리’가 ‘상담실습’ 영역으로 이동되었고, ‘다문화상담’과 ‘사회정의옹호상담’이 ‘다문화 및 사회정의옹호상담’으로 다시 통합되었으며, ‘사회문제론’이 삭제되어 총 29개의 교과목이 도출되었다. 델파이 조사를 통해 도출된 세부 교과목의 변화 추이는 표 4와 같다.

표 5에는 1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도출한 청소년상담사 표준교육과정 교과목 적합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CVR, 합의도, 수렴도, 필수 여부를 제시하였다.

표 5

1차 델파이 조사 청소년상담사 표준교육과정 교과목 적합도

영역	교과목	평균	표준 편차	CVR	합의도	수렴도	필수 응답률 (%)
상담기초	상담의 이론과 실제	4.88	0.34	1.00	1.00	0.00	87.5
	집단상담	4.63	0.50	1.00	0.80	0.50	68.8
	심리측정 및 평가	4.63	0.50	1.00	0.80	0.50	75.0
상담실습	사례연구 및 슈퍼비전	4.50	0.73	0.75	0.80	0.50	93.8
	상담현장(기관)실습	4.31	0.79	0.63	0.78	0.50	62.5
	사회복지현장실습	3.73	0.96	0.33	0.75	0.50	31.3
인간·청소년 이해	발달심리학	4.81	0.40	1.00	1.00	0.00	87.5

영역	교과목	평균	표준 편차	CVR	합의도	수렴도	필수 응답률 (%)
	이상심리학	4.67	0.48	1.00	0.80	0.50	81.3
	성격심리학	4.19	0.66	0.75	0.75	0.50	31.3
	학습심리학	4.00	0.73	0.50	0.88	0.25	37.5
	사회심리학	3.75	0.86	0.25	0.75	0.50	18.8
영역별 상담	진로상담	4.56	0.73	0.75	0.80	0.50	50.0
	가족상담	4.56	0.63	0.88	0.80	0.50	56.3
	학업상담	4.44	0.81	0.63	0.80	0.50	43.8
	비행상담	4.00	1.21	0.50	0.69	0.63	31.3
	성상담	4.31	0.79	0.63	0.78	0.50	25.0
	중독상담	4.44	0.81	0.63	0.80	0.50	25.0
	위기상담	4.63	0.72	0.75	0.95	0.13	68.8
	다문화상담 및 사회정의옹호상담	4.19	0.91	0.63	0.75	0.50	31.3
	사회복지실천(기술)론	3.19	1.11	-0.25	0.58	0.63	0.0
	면접원리	4.20	1.15	0.60	0.80	0.50	75.0
	상담윤리	4.81	0.54	0.88	1.00	0.00	93.8
	상담 행정 및 정책	4.19	0.91	0.63	0.75	0.50	56.3
상담 실무 및 행정	상담교육	4.00	1.13	0.47	0.63	0.75	37.5
	연구방법론	4.19	0.66	0.75	0.75	0.50	31.3
	프로그램 개발	4.13	0.89	0.63	0.75	0.50	43.8
	상담법제도	4.13	0.89	0.63	0.75	0.50	68.8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상담기초’ 영역은 평균 4.63-4.80으로 나타나 높은 수준의 적합도를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합의도와 수렴도 또한 0.80-1.00, 0.00-0.50으로 전반적으로 참여자들의 의견이 수렴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CVR은 모든 과목이 1.00으로 타당하게 판정되었다. 교과목별 필수 여부에 대한 응답률은 ‘상담의 이론과 실제(87.5%)’, ‘심리측정 및 평가(75.0%)’, ‘집단상담(68.8%)’ 순으로 나타났다.

‘상담실습’ 영역은 평균 3.73-4.50의 적합도 수준을 나타냈으며,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의 CVR이 0.33으로 최소 기준값에 미치지 못하였다. 합의도는 0.75-0.80, 수렴도는 0.50으로 의견 수렴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교과목별 필수 여부에 대한 응답률은 ‘사례연구 및 슈퍼비전(93.8%)’, ‘상담현장(기관)실습(62.5%)’, ‘사회복지현장실습(31.3%)’ 순으로 확인되었다.

‘인간·청소년 이해’ 영역의 적합도 평균은 3.75-4.81로 나타났고, CVR은 0.25-1.00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심리학’ 과목의 CVR이 0.25로 나타나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합의도는 0.75-1.00이고, 수렴도는 0.00-0.50으로 확인되어 참여자들의 의견이 수렴된 것으로 보인다. 교과목별 필수 여부에 대한 응답률은 ‘발달심리학(87.5%)’, ‘이상심리학(81.3%)’, ‘학습심리학(37.5%)’, ‘성격심리학(31.3%)’, ‘사회심리학(18.8%)’ 순으로 나타났다.

‘영역별 상담’ 영역은 평균 3.19-4.63, CVR -0.025-0.87로 과목 간 편차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복지실천론’ 과목의 CVR 값이 -0.25로 음수에 해당할 만큼 낮게 나타나 내용타당도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합의도와 수렴도 역시 0.58-0.80, 0.50-0.63 선에서 그쳐 참여자들의 의견이 수렴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교과목별 필수 여부 응답률은 ‘위기상담(68.8%)’, ‘가족상담(56.3%)’, ‘진로상담(50.0%)’, ‘학업상담(43.8%)’, ‘비행상담(31.3%)’, ‘다문화상담 및 사회정의옹호상담(31.3%)’, ‘성상담(25.0%)’, ‘중독상담(25.0%)’ 순으로 나타났다.

‘상담 실무 및 행정’ 영역은 평균 4.00-4.81, CVR 0.54-0.88로 내용타당도를 확보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합의도는 0.63-1.00이고, 수렴도는 0.00-0.75로 참여자들의 의견 또한 수렴되었다고 볼 수 있었다. 교과목별 필수 여부는 ‘상담윤리(93.8%)’, ‘면접원리(75.0%)’, ‘상담법제도(68.8%)’, ‘상담 행정 및 정책(56.3%)’, ‘프로그램 개발(43.8%)’, ‘상담교육(37.5%)’, ‘연구방법론(31.3%)’ 순으로 나타났다.

2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도출한 청소년상담사 표준교육과정 교과목 적합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CVR, 합의도, 수렴도, 필수 여부는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

2차 델파이 조사 청소년상담사 표준교육과정 교과목 적합도

영역	교과목	평균	표준 편차	CVR	합의도	수렴도	필수 응답률(%)
상담기초	상담의 이론과 실제	4.60	0.74	0.73	0.90	0.25	81.3
	집단상담	4.56	0.63	0.88	0.80	0.50	87.5
	심리평가	4.56	0.63	0.88	0.80	0.50	75.0
	(추가) 청소년상담의 이론과 실제	4.33	0.90	0.47	0.70	0.75	75.0
상담실습	사례연구 및 슈퍼비전	4.81	0.40	1.00	1.00	0.00	100.0
	상담현장(기관)실습	4.56	0.63	0.88	0.80	0.50	68.8
	사회복지현장실습	3.53	0.92	0.07	0.75	0.50	12.5
인간·청소년 이해	발달심리학	4.69	0.48	1.00	0.80	0.50	93.8
	이상심리학	4.69	0.48	1.00	0.80	0.50	87.5

영역	교과목	평균	표준 편차	CVR	합의도	수렴도	필수 응답률(%)
	성격심리학	4.13	0.89	0.63	0.75	0.50	31.3
	학습심리학	3.87	0.74	0.33	0.75	0.50	6.3
	(수정) 사회문제론	3.81	0.75	0.25	0.75	0.50	25.0
	(추가) 청소년이해론	4.00	0.97	0.38	0.50	1.00	37.5
영역별 상담	진로상담	4.69	0.48	1.00	0.80	0.50	56.3
	가족상담	4.63	0.62	0.88	0.80	0.50	62.5
	학업상담	4.25	0.68	0.75	0.75	0.50	25.0
	비행상담	4.00	1.10	0.50	0.69	0.63	12.5
	성상담	4.50	0.63	0.88	0.80	0.50	18.8
	중독상담	4.50	0.63	0.88	0.80	0.50	25.0
	위기상담	4.69	0.48	1.00	0.80	0.50	75.0
	다문화상담 및 사회정의옹호상담	3.86	0.53	0.57	1.00	0.00	6.3
	(분리) 다문화상담	4.00	0.82	0.63	0.94	0.13	12.5
	(분리) 사회정의옹호상담	3.47	0.99	0.20	0.75	0.50	6.3
	(추가) 부모상담	4.63	0.62	0.88	0.80	0.50	62.5
	사회복지실천(기술)론	3.19	1.28	-0.25	0.58	0.63	18.8
	상담 행정 및 정책	4.25	0.58	0.88	0.75	0.50	56.3
	상담교육	4.00	0.82	0.38	0.50	1.00	37.5
상담 실무 및 행정	연구방법론	4.06	0.68	0.63	0.94	0.13	31.3
	프로그램 개발	3.94	1.06	0.50	0.69	0.63	37.5
	상담법제도	4.44	0.63	0.88	0.78	0.50	81.3
	상담윤리	4.88	0.50	0.88	1.00	0.00	100.0
	면접원리	4.44	0.96	0.63	0.80	0.50	87.5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상담기초’ 영역은 평균 4.33-4.60으로 높은 적합도 수준을 나타냈으며, CVR은 0.47-0.88로 나타났다. ‘청소년상담의 이론과 실제’ 과목의 경우 청소년상담의 특성을 반영한 과목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2차 델파이 조사 시 추가 과목으로 설정하였으나, CVR이 0.47로 최소 기준값에 다소 미치지 못하였다. 합의도는 0.70-0.90, 수렴도는 0.25-0.75로 참여자들의 의견이 수렴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과목별 필수 여부에 대한 응답률은 ‘집단상담(87.5%)’, ‘상담의 이론과 실제(81.3%)’, ‘심리평가(75.0%)’, ‘청소년상담의 이론과 실제(75.0%)’ 순으로 나타났다.

‘상담실습’ 영역은 평균 3.53-4.81, CVR 0.07-1.00으로 과목별 편차를 보였으며, ‘사회복

지현장실습' 과목의 CVR이 0.07로 최소 기준값에 미치지 못하였다. 합의도는 0.75-1.00, 수렴도는 0.00-0.50으로 참여자들의 의견이 수렴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 전원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고 판단한 과목은 '사례연구 및 수퍼비전(100.0%)'이었으며, 나머지 과목의 필수 여부에 대한 응답률은 '상담현장(기관)실습(68.8%)', '사회복지현장실습(12.5%)' 순으로 나타났다.

'인간·청소년 이해' 영역은 평균 3.87-4.69, CVR 0.38-1.00으로 나타났으며, '학습심리학', '청소년이해론', '사회문제론' 과목의 CVR이 각각 0.33, 0.38, 0.25로 최소 기준값보다 낮게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이해론' 과목의 경우 청소년의 특성을 보다 집중적으로 다루는 과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2차 델파이 조사 시 추가 과목으로 설정하였으나 적절한 내용타당도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사회문제론' 과목 역시 종전의 '사회심리학' 과목의 명칭을 보다 포괄적인 방향으로 수정하여 제시하였으나 마찬가지로 적합하지 않은 과목으로 판단되었다. 합의도는 0.50-0.80, 수렴도는 0.50-1.00으로 참여자들의 의견이 수렴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목별 필수 여부에 대한 응답률은 '발달심리학(93.8%)', '이상심리학(87.5%)', '청소년이해론(37.5%)', '성격심리학(31.3%)', '사회문제론(25.0%)', '학습심리학(6.3%)' 순으로 나타났다.

'영역별 상담' 영역은 평균 3.19-4.69, CVR -0.25-1.00으로 과목별 편차를 보였으며, '사회복지실천론' 과목의 CVR이 -0.25로 나타나 타당도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합의도는 0.58-1.00, 수렴도는 0.00-0.63으로 나타나 참여자들의 의견이 수렴되었다고 판단하기 다소 어려웠다. 2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다문화상담 및 사회정의옹호상담' 교과목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다문화상담'과 '사회정의옹호상담'으로 분리한 교과목을 추가로 조사 대상에 포함하였으나, 분리 후 '다문화상담' 교과목의 CVR은 0.63으로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사회정의옹호상담' 교과목의 CVR이 0.20으로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과목별 필수 여부에 대한 응답률은 '위기상담(75.0%)', '가족상담(62.5%)', '부모상담(62.5%)', '진로상담(56.3%)', '학업상담(25.0%)', '중독상담(25.0%)', '사회복지실천(기술)론(18.8%)', '성상담(18.8%)', '비행상담(12.5%)', '다문화상담(12.5%)', '다문화상담 및 사회정의옹호상담(6.3%)', '사회정의옹호상담(6.3%)' 순으로 나타났다.

'상담 실무 및 행정' 영역은 평균 3.94-4.88, CVR 0.38-0.88로 나타났다. 특히 '상담교육' 과목의 CVR이 0.38로 최소 기준값에 미치지 못하였다. 합의도와 수렴도 또한 0.50-1.00, 0.13-1.00으로 나타나 참여자들의 의견이 수렴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웠다. 참여자 전원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고 판단한 과목은 '상담윤리(100.0%)'였으며, 나머지 과목의 필수 여부에 대한 응답률은 '면접원리(87.5%)', '상담법제도(81.3%)', '상담 행정 및 정책(56.3%)',

‘상담교육(37.5%)’, ‘프로그램 개발(37.5%)’, ‘연구방법론(31.3%)’ 순으로 나타났다.

IV. 논 의

본 연구는 청소년상담 관련 전공 교수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여 청소년상담사 표준교육과정의 영역과 교과목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도출한 청소년상담사 표준교육과정의 영역은 상담기초, 상담실습, 인간·청소년 이해, 영역별 상담, 상담 실무 및 행정으로 총 5개이며, 각 영역 및 조작적 정의에 대한 적합도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표준교육과정의 영역과 교과목이 적절하게 구성되었음을 시사한다. 전문상담교사 양성 및 재교육을 위한 표준교육과정 연구 결과와 비교를 하면 김희정 등(2015)의 연구에서는 영역별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을 구분하여 학교상담 기초, 상담실습은 필수과목에 포함되며 영역별 상담, 학교상담 실무, 기초이론은 선택과목에 포함이 되는 것이 일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영역별로 구성되어 있는 세부 과목들을 살펴보면 학교상담 기초 영역의 과목은 상담이론과 실제, 심리검사, 집단상담 등 본 연구의 상담기초 영역과 유사한 과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전문상담교사 표준교육과정의 상담실습 영역은 상담실습I, II 두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본 연구에서는 사례연구 및 수퍼비전, 상담현장(기관) 실습, 면접원리 등 보다 세부적인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델파이 패널에 참여하였던 청소년상담 관련 전공 교수 및 현장 전문가들은 청소년상담 분야에서 실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기존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개선 연구에서 대학 교육과정의 실습과목을 강화해야 하며, 실무경험을 응시자격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본 연구에서 도출한 표준교육과정의 영역과 교과목도 이러한 현장의 의견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김창대 등, 2013; 서영석 등, 2013). 그다음으로, 영역별 필수여부에 대한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상담기초, 상담실습 영역의 경우 100%로 나타난 반면, 영역별 상담은 31.3%, 상담 실무 및 행정은 50.0%로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청소년상담이 다양한 역량을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델파이조사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은 상담 기초와 실습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는 상담의 기초적인 지식에 대한 교육과 청소년상담 실무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김인규, 2018; 김동일 등, 2020; 안성희, 성현모, 김보람, 이상민, 2022).

둘째, 청소년상담사 표준교육과정의 교과목으로 상담의 이론과 실제, 집단상담, 심리평가, 청소년상담의 이론과 실제, 상담윤리, 사례연구 및 수퍼비전, 상담현장(기관)실습, 사회복지현

장실습 등 총 29개 과목이 도출되었다. 현재 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에서 제시하고 있는 동일(유사)교과목 15개 중 면접원리를 제외한 14개 과목(상담의 이론과 실제제, 발달이론, 집단상담, 심리측정 및 평가, 이상심리, 성격심리,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상담교육, 진로상담, 가족상담, 학업상담, 비행상담, 성상담, 청소년상담)이 본 연구에서 도출한 표준교육과정 교과목에 포함되었다. 동일(유사)교과목은 법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10개 청소년상담 관련 전공의 교과목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전공의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상담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분야 특성이 교과목 구성에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인다. 기존 상담 관련 교육과정 연구 결과와 비교를 해보면 청소년상담의 이론과 실제, 청소년이해론, 비행상담, 상담 행정 및 정책 등 보다 청소년상담에 필요한 교과목들이 교육과정에 포함된 것이 선행연구와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이숙영, 김창대, 2002; 최해림, 김영혜, 2006). 이는 청소년상담 현장에서 청소년들의 발달 및 행동 특성을 이해하고 청소년들이 자주 나타내는 문제들에 개입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전 영역을 통틀어 상담윤리 과목($M=4.88$, $CVR=.88$)과 사례연구 및 수퍼비전($M=4.81$, $CVR=1.00$)이 가장 높은 적합도를 나타냈다. 그다음으로, 발달심리학, 이상심리학, 진로상담, 위기상담이 평균 4.69, CVR 1.00으로 높은 적합도를 보였다. 최근 상담사 법제화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제화의 필요성 중 하나로 상담사의 윤리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체계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교육과정을 통해 배출된 몇몇 상담사들의 비윤리적인 문제들로 인해 내담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보고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내 상담윤리 교육을 통해 상담사가 내담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존중하고, 안전하고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처럼 상담사의 전문성은 단순히 상담 기술적인 측면 뿐만이 아닌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함을 포함한다. 따라서, 상담사의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상담윤리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이에 대한 수퍼비전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최해림, 김영혜, 2006). 이러한 실습의 중요성은 상담사 법률에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안성희 등(2022)의 연구에서도 상담사의 실무역량 증진을 위해서는 학위과정에서의 상담실습뿐만 아니라 심리상담사 자격 취득 후의 실무교육도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청소년상담사 표준교육과정의 현장 적용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 요건을 응시자가 실제 이수한 교육과정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현재 청소년상담사 양성과정은 응시자격의 경우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특정 과목을 이수한 사람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상담사 시험 응시자격에 포함된 학과들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의

차이가 크다는 점과 이수 과목의 수만을 기준으로 청소년상담사 역량의 충족 여부를 판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 체제하에서 부여되는 청소년상담사 자격만으로는 청소년상담사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표준교육과정을 확립하는 과정의 첫 단계로 교육과정에 포함된 교과목의 경우, 교과목명이나 교수요목을 표준화하여 이를 공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동일(유사)교과목을 판정함으로써, 교과목명 및 교수요목의 점진적인 표준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다음, 청소년상담 관련 주요 10개 학과를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표준교육과정을 반영하여 교과목, 교수요목, 교육과정 및 수업을 설계하도록 제안하고, 특히 표준교육과정의 각 영역 필수과목을 개설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소년상담사 표준교육과정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상담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학위과정 내에 전문적인 실습환경 조성이 같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안성희 등, 2022). 학교의 사정에 따라 체계적인 실습과목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교육과정과 학회를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하거나, 학생들이 교내 또는 교외 상담센터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노력이 필요할 수 있다(김동일, 정여주, 신윤정, 장한소리, 팽현지, 2021). 또한, 청소년상담 영역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학위과정 내에서 모든 교육과정을 충족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일반적으로 대학교 내 상담 수련 과정은 석사과정 이상부터 참여가 가능하여 학부 수준에서 실행 가능한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표준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는 것이 청소년상담사의 전문성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며, 자격시험 이후의 연수교육과정, 보수교육과정을 통해 청소년상담 실무에 필요한 추가적인 교육들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상담사 표준교육과정이 관련 학과에 의무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청소년상담사 자격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여러 선행연구에서도 전문적인 상담사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의 표준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에도, 대학에서의 상담사 양성 교육과정은 여전히 표준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김인규, 2018). 이는 상담 관련 전공 및 학과의 교육과정을 제한하고 관리할 만한 인증체계와 관리기관이 부재하며, 이러한 인증체계를 뒷받침할 만한 법률 또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과정에 있어서는 대학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있으므로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상담사는 2003년부터 국가자격으로 선발이 이루어지면서 양적으로 큰 성장을 이루었다.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상담사를 양성하는 대학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상담 관련 표준교육과정 선행연구와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표준교육과정의 영역과 교과목을 도출하였고 델파이 조사를 통해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청소년상담사 표준교육과정을 현장에 적용하고 전문적인

청소년상담사를 양성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청소년상담과 관련한 다양한 전공 및 기관을 고려하여 델파이 패널을 구성하였지만, 법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청소년상담사 관련 10개 학과 소속 전문가들을 모두 포함시키지는 못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청소년상담과 관련된 10개 학과 모두에 소속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상담사 표준교육과정의 영역과 교과목을 구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기에 각 교과목별로 교육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각 교과목별로 요구되는 구체적인 교육내용 및 교수자 자격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청소년상담사 표준교육과정 교과목으로 최종 선정된 과목 중 CVR이 다소 낮은 과목들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현장실습과 사회복지실천기술론 과목이 타당도가 낮게 나타났음에도 최종 과목으로 선정되었다. 다양한 전공의 전문가들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상담분야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고 청소년상담사를 배출하고 있는 기존의 전공에서 지정한 필수과목을 최대한 배제시키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타당도가 낮게 나타난 과목들이 포함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청소년상담사 급수에 상관없이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필요한 교육과정의 교과목과 영역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에 필요한 기본적인 과목 및 영역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급수별로 구분하여 어떤 과목들이 학위과정에서 교육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교육부 (2010). **진로진학상담교사 양성을 위한 표준교육과정 개발 연구**.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김동일, 김인규, 서영석 (2017).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개선 연구**. 부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김동일, 정여주, 신윤정, 장한소리, 팽현지 (2021). 국내 대학원 수련과정과 슈퍼비전 운영 방안. **상담학연구**, 22(5), 23-43. doi:g/10.15703/kjc.22.5.202110.23
- 김동일, 현은정, 우예영, 박준영 (2020). 청소년 고위기 상황 및 효과적 개입에 대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기청소년 담당자의 인식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28(2), 281-303. doi:10.35151/kyci.2020.28.2.013
- 김인규 (2018). 국내 상담자격의 현황과 발전방안.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0(3), 475-493. doi:10.23844/kjcp.2018.08.30.3.475
- 김창대, 이은경, 김인규 (2013).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제도 개선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김형수, 이주영 (2021). 청소년의 비자살적 자해 잠재계층유형 분석: 영향요인과 유형별 정서·행동 문제 차이. **청소년학연구**, 28(12), 271-297. doi:10.21509/KJYS.2021.12.28.12.271
- 김희정, 유형근, 정여주, 선혜연 (2015). **전문상담교사 양성 및 역량개발을 위한 표준교육과정 개발연구**. 세종: 교육부.
- 박재황, 남상인, 김창대 (1993). **청소년상담교육과정개발연구**. 서울: 청소년대화의광장.
- 서영석, 김동일, 고은영, 김민선, 김애란, 최민영 (2013).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개선방안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 신혜란 (2019). 자원상담원의 보호관찰청소년 상담경험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21(3), 35-66. doi:10.19034/KAYW.2019.21.3.02
- 안성희, 성현모, 김보람, 이상민 (2022). 실무실습, 실무수련, 실무교육, 실무경력: 심리상담사의 실무능력배양의 방향성. **상담학연구**, 23(3), 39-49. doi:10.15703/kjc.23.3.202206.39
- 여성가족부 (2022). **2021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 이종성 (2006). **델파이 방법**. 서울: 교육과학사.
- 장현진, 이종범 (2016). 진로진학상담교사 양성 표준교육과정 개정 방안 연구. **진로교육연구**, 29(3), 1-21.
- 정순례, 양미진, 손재환 (2015). **청소년 상담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 최창욱, 좌동훈 (2021).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개선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최해림, 김영혜 (2006). 한국의 상담자 교육과 훈련에 관한 연구: 상담심리 석·박사 교과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4), 713-729.

- Ayre, C., & Scally, A. J. (2014). Critical values for Lawshe's content validity ratio: revisiting the original methods of calculation.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counseling and development*, 47(1), 79-86. doi:10.1177/0748175613513808
- Copeland, A. D. (1974). *Textbook of adolescent psuchopathology and treatment*. Springfield, LL: Thomas.
- Lawshe, C. H. (1975). A quantitative approach to content validity. *Personnel Psychology*, 28(4), 563-575.
- Lee, K. S., Lim, D., Paik, J. W., Choi, Y. Y., Jeon, J., & Sung, H. K. (2022). Suicide attempt-related emergency department visits among adolescents: a nationwide population-based study in Korea, 2016-2019. *BMC psychiatry*, 22(1), 418.
- Reddy, R., Rhodes, J. E., & Mulhall, P. (2003). The influence of teacher support on student adjustment in the middle school years: A latent growth curve stud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5(1), 119-138. doi:10.1017/S0954579403000075

ABSTRACT

Exploring subjects of standardized curriculum for youth counselors in South Korea by delphi method

Kim, Dongil*·Park, Junyoung**·Lee, Juyoung***·Park, Inhoo****·Im, Gihun*****

This study explored the alternatives to improve curriculums for training youth counselors and providing effective intervention for at-risk youth. Our research specifically focused on suggesting the subjects of a standardized curriculum for youth counselors by analyzing previous studies and the opinions of practitioners in the field. To identify the subjects of the curriculum, we first implemented a need assessment to gather the opinions from professors and practitioners. We then developed a standardized curriculum with five sections and subjects based on analyzing previous studies and the need assessment. We employed the Delphi method to determine the final curriculum by modifying the eligibility criteria, the syllabus component, and the youth counselor's competence. Finally, we discussed the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relative to the systematic application of the curriculum.

Key Words: youth counselor, standardized curriculum, delphi method

* Dept.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 Dept.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Ph.D. Candidate

*** Dept. of Counseling, Dankook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Dept.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Ph.D. Student

***** Dept.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M.A. Student